



2008서울리빙디자인페어

## 예술, 문화,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신 주거 트렌드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 '2008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COEX 태평양 홀과 인도양 홀, 대서양 홀에서 열렸다. 인테리어의 최신 경향에서부터 세계적 디자인 거장들의 작품들까지 총망라한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는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에디터 하유정 사진 김형민

'2008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는 럭셔리함과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한 생활 방식을 접목한 '오늘의 궁(宮), 드림 펠리스'를 테마로 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였다. 14회째를 맞는 리빙디자인페어에는 고급 주거 문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첨단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최고의 생활 공간이 전시됐다. 국내외 주거 관련 100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힐스테이트 트렌드 포럼에서 세계적 디자이너 론 아라드(Ron Arad), 구마 겐코(Kengo Kuma)의 디자인 트렌드, 작가주의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크래프트 리빙 아트 '전주'가 펼쳐졌다.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하진 전주 시장, 구마 겐코 일본 건축가, 이남식 전주한지축제 위원장, 현대 힐스테이트 등 건설 업체와 각국 대사들, 디자인 업체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 전통 미학의 새로운 발견

디자이너 초이스의 '천년전주 명품 온(ONN)'에서는 현대 생활 속에서의 한국과 세계 속에서의 한국이 갖고 있는 숨겨진 문화의 철학적 가치를 부각시켜 이들의 작업을 실 생활에 접목해 현대인의 삶 속에서 널리 보급되고 사용되도록 연출했다.

현대 악기장 고수환, 소목장 김재중 등 무형 문화재 9인과 디자이너 김백선의 만남을 통해 가구 10여 점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가구는 장식장, 시방 탁자, 서랍장, 찻 상 등으로 무형 문화재들이 전통 공예 기법으로 제작했으나, 디자인은 요즘 아파트 공간에도 어울리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제작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송하진 전주 시장은 "리빙페어를 통해 천년전주 명품 온 등 전통의 고장 전주가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자산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통로

힐스테이트 트렌드 포럼에서는 세계 3대 디자이너 가운데 한 명인 영국의 론 아라드와 일본 최고의 건축 디자이너 구마 겐코가 한국 전통의 '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의 최고급 문화가 응집되어 있는 궁, 그중에서도 당대 가장 호사스럽고 최고의 방이었던 '황후의 방'을 컨셉트로 현대 생활 양식에 맞춰 힐스테이트와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라이프 디자인을 제시한 것이다. 론 아라드는 '몽환, 꿈 속을 거닐다'라는 제목으로 황후의 방을 이 세상의 공간이 아닌, 마치 꿈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로 연출했다. 그리고 구마 겐코는 '풍선 같은 인생(Ballon Life)'이라는 제목으로 황후의 방을 사사로운 공간이 아닌, 성스럽고 특별함을 지닌 공간으로 표현했다.

아메리칸 하드우드 포럼에서는 수려한 나무결과 다양한 컬러, 특유의 자연스러움으로 우리의 생활 전반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아메리칸 하드우드(활엽수)'라는 공통된 소재를 바탕으로 유아하, 이재효, 차종례 등의 디자이너가 작품을 전시했다. 이들은 디자인페어의 'Dream Palace'라는 컨셉트에 맞게 '미로 찾기'를 주제로 아메리칸 하드우드로 특유의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공간을 창조했다.

#### 럭셔리를 정리하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3층 대서양 홀에 꾸며진 특별 기획관에서는 '살롱 드 리빙 아트(Salon de Living Art)'라는 주제로 새로운 하이엔드 리빙 문화를 제안했다. 아트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공간, 살롱 드 리빙 아트 특별 기획관은 가구, 가전, 패브릭, 테이블 웨어, 조명 등 인테리어의 다양한 분야에서 High-Touch, High-End, Heritage를 모두 갖춘 최고의 브랜드들이 최상의 생활 공간을 선사했다. 게다가 1층 전시 공간과는 달리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은은한 음악을 들려주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육선, 김승희, 신경옥, 장순각, 유승재, 이나미, 황규선 7명의 디자이너가 각각 자신이 선호하는 예술품을 주제로 감성적인 공간을 꾸며놓았다. 특히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스페이스 아트'에서는 세계 각국의 식탁을 눈으로 맛볼 수 있는 '테이블 데커레이션'을 선보였는데, 각국의 특징을 잘 표현한 음식과 식기 등을 세팅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LE 디자인의 이재희 디자이너, 배세화 스튜디오의 퓨처 디자인 작품, 행남자기의 이상봉 디자이너, 김종만 사진작가의 작품 등도 선보였다. 또한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뿐만 아니라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 등 학생들의 디자인도 전시되어 신선함을 더했다.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마련된 이번 디자인리빙페어에서는 주거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도 열렸다. '동양의 소재, 유럽 고급 트렌드의 기반이 되다' 라는 주제로 일본 건축 디자이너 구마 겐코의 강연을 비롯해, 전주 명품 공예 브랜드 'ONN' 의 사례 발표로 '한국의 공예 산업, 세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자이너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김백선 디자이너가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세계적인 트렌드 정보사 벨리로드의 대표인 '피에르 프랑수아 르 루에(Pierre-Francois LE LOUET)' 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세미나, '21세기 브랜드 차별화 전략' 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됐다.

총 16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은 2008서울디자인리빙페어는 관람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마지막 날까지 최신 주거 트렌드에 관심 있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01 플라워와 오브제를 테마로 공간을 연출하는 ㈜스타일인드에서 꽃으로 말을 장식했다. 02 디자이너 초이스의 '천년전주 명품 온(ONN)' 에서는 무형 문화재가 제작한 장식장, 사방 탁자, 서랍장 등을 요즘 아파트 공간에도 어울리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선보였다. 03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하진 전주 시장, 현대 힐스테이트 등 국내외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다. 04 디자이너 김병호와 아르마니 까사가 선보인 <Their Flowers>. 꽃에서 인공한 같은 모양의 구조를 수십 개가 다발로 묶여 있다. 05 김육선 디자이너와 스타일 H가 공동 작업한 <몽환의 도시>. 1920년대 경성을 모티브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펼쳐지는 꿈 같은 '환상' 과 일제 치하의 암담한 현실인 '절망' 이 공존한 시대적 메시지를 담았다. 06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 신경옥과 매거진 <행복이 가득한 집>이 선보인 <미만이 문을 열다 어머니, 향수 그리고 부엌>.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엄마의 부엌을 차가운 느낌의 타일 싱크대와 따뜻한 감각의 나무(비드) 소재를 믹스해 현재와 과거를 매치시켰다. 07 아메리칸 하드우드 포럼에서는 수려한 나무결과 다양한 컬러, 특유의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아메리칸 하드우드를 소재로 유아회, 이재효, 차종례 등의 디자이너가 작품을 전시했다. 08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 자기에 예술적 감성을 담아낸 행남자기. 09 디자이너 손봉주와 뱀앤웜웜슨이 선보인 <소통을 위한 끈을 내린다>. 고무밴드 다발의 벌어진 틈 사이를 지나는 빛을 이용해 반대쪽에 오롯이 새겨진 그림자에 주목하게 만든다. 10 힐스테이트 트렌드 포럼에서는 '황후의 방' 을 컨셉트로 궁을 현대 생활 양식에 맞춰 힐스테이트와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 라이프 디자인을 제시했다. 구마 겐코가 디자인한 <풍선 같은 인생>. 11 Antique Oil Lamp Decanter 부스에 전시된 1966년식 재규어 차량. 12 덴마크 가구 디자이너 핀을, 한스웨그너가 디자인한 iLD 가구들.

